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5호 [루계 제23452호] 주제100 (2011)년 5월 15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락랑봉화피복공장,

봉화비누공장 종업원궐기모임 진행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貫彻하기 위한 종업원궐기모임이 14일 락랑봉화피복공장, 봉화비누공장에서 진행되었다. 김항심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신금녀, 작업반장 한금순, 동차 박인우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공장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의 중요부문을 맡고있다는 책임감을 간직하고 우리 인민들과 너

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 옷가공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며 설비판리를 통하여 기대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봉화비누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지배인 신금녀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들인 리금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

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

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경영활동을 실り있게 할데 대

을 실현하는데서 공장이 중요

한 뜻을 알고 있다고 하신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생산을 늘리며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인민에 대한 존중이 있고

여국심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질 좋은 비누제품을 더 많

이 생산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소비 품생산을 높일때 대한 당의 호소를 받았고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 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봉화비누공장은 비누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보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제작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을 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를 결의하고 모내기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 안악군 엄곳협 동농장에서 -

###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에!

#### 질 좋은 옥감을 더 많이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데

트론인 견천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시었으며 공사를 짧은 기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기대들에 정통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

상화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지금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에 단번으로 걸어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기 위한 증산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방직공들은 인민에 대한 현

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모두가 자기 옥감을 짜는 심정으로 지혜와 열정을 깃들리며 비벼가며 질 좋은 천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미 여러 생산공정들의 현대화실현에서 풍부한 경험과 앞선 과학기술을 체득한 이곳 일군들과 방직공들은 현대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앞으로 레트론인 견천생산의 앞공정인 레트론인 견방사공정까지 최첨단파학기술로 현대화할 대답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현행 생산을 힘 있게 다그치면서 하나하나 모가 나게 실천해나가고 있다.

나라의 대규모 천생산기지에서 생산공정들이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되고 갖가지 질 좋은 옥감들이 대량생산되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소식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드세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계약으로 높일수 있게 되어있다.

이 직장에서 생산하는 양복천, 사즈원은 방직공업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 인민들의 기호, 날로 높아가는 질적수준에 맞는 인기있는 옥감으로서 비단천원 손맛이 부드럽고 여리가지 색깔과 문양뿐 아니라 윤기도 보장하여 고하고 세련된 옥차림을 지향하는 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현대적이면서도 생산성이 높

본사기자 명 흥 숙

### 중요물동수송량 1. 2 배 장성

#### 개천철도에

들이고 드세게 내밀고 있다.

수송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증송통수송수에 성능 탁하고 있다.

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무사고운행을 보장하면서 경공업부문과 농업전선에 매일 많은 짐을 실어나르고 있다.

강제철도분국의 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선행판을 지켜

철도국에 각 철길대들에

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철길고착풀과 기

공구들을 차지로 마련하면

서 철길보수작업을 빠르

이게 다고 있다.

지금 개천철도국의 일군들

과 수송전사들은 높이 세운

5월과 상반년 수송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풀별 목표

를 내세우고 둘째기 풀별 목표

를 세우고 둘째기 풀별 목표

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 산소분리기가 은을 낸다

#### 보산제철소에서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증송통수송의 불길이 세차게

전반으로 벌어지고 있다.

강제철도분국의 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선행판을 지켜

철도국에 각 철길대들에

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철길고착풀과 기

공구들을 차지로 마련하면

서 철길보수작업을 빠르

이게 다고 있다.

지금 개천철도국의 일군들

과 수송전사들은 높이 세운

5월과 상반년 수송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풀별 목표

를 내세우고 둘째기 풀별 목표

를 세우고 둘째기 풀별 목표

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자립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특히 훌해에 들어와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파전에 질 좋은 제강원

료가 넉넉히 보장되어 천리마제 강련합기업소에서 인민

경제 여전부문에 필요한 강

철생산을 늘리고 있다.

보산제철소의 루동계급은

현대적인 산소분리기가 은

이 도입된 3호회전에

나도록 설비판리를 짜고 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아들이었다.

지금 보산제철소의 주체

철생산에서 산소분리기의

우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료장입으로부터 마감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

업은 콤팩터에 의한 통합조

종체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현대화된 일터에서

로동자들은 흥겹게 일하며

승리의 신심드 높이 강철생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본사기자 림 학 쟈

을 치고 있다.

— 천리마제 강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림 학 쟈

을 치고 있다.

— 천리마제 강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림 학 쟈

### 새로운 건강식품과 고려약 개발

#### 평천고려약공장에서

식의 앞선 기술인 흡수촉진제를

받아들이고 철근에 세워

기후에 맞는 대책을 기획하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저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와산동-룡성도로 확장공사에 참가하신 50돐을 맞으며

이 땅에 휘몰아치는 강성대국전 설의 거세찬 열풍과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의 장엄한 모습이 눈부시게 빛난다.

넓고 시원하게 푹푹 뻗어 나간 도로들이며 현대적 미감을 자랑하는 건축물들,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며 일떠서는 살림집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領導의 손길아래 나날이 그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는 내 조국의 사랑찬 현실을 목격할수록 우리 가슴에 어버이 수령님의 수도건설구상을

## 몸소 건설자가 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50(1961)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와산동-룡성도로 확장공사에 참가하였다.

그 날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잊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히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끄신 우리 장군님의 송고한 현신, 한없이 소탈하고 겸허하신 성품이 대체에 대하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사에 참가하신 첫날부터 학생들과 꽃같이 목표를 메시고 작업장을 오가시였으며 어려운 작업파제가 제기되면 앞장에서 서서히 대중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속되어 일하시는 소대에 휘부로 부터 작업대상이 달라졌으니 빨리 작업장을 훑기라는 지시가 내렸다.

그 작업대상이란 다른아닌 수증기작착였다.

물속에서 땅을 파낸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던 학생들과 소대초급일군들은 작업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 힘을 지휘부에서 온 사람에게 제기하였다.

그가 동무들의 의견대로 다시 토의해보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제지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부, 대내부에 가서 전하시오. 우리 소대가 맡겨준 일을 잘해낼 것이다고...»

그리시고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 심장 속에 지펴주신 블길

오늘 강성대국건설장들에서 대중의 심금을 털어잡는 항일유격대식 선동사업의 생활력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일찌기 와산동-룡성도로 확장공사장에 세차게 나부끼던 불온기들이 드디어 사라졌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것을 포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작업장을 한 바탕 들었다는 오락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사장에는 현장방송이 설치되었고 현장신문인 『근위대』가 발간되었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통신선동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의 토막곡 『작쟁 1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애 순희야, 옆집에 가서 베찌 좀 떨려오너라.

순희—(옆집으로 가서) 아씨, 우리 아버지가 베찌 좀 떨려달래요.

그런데 동무들도 보다싶이

이 날 휴식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네랫병의 대형 학생들과 허리를 물어뜯어 이기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막아나면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장한 사실이며 자기들의 비웃파 웃옷까지 벗어 던으며 쓰러지는 무더기 기부로 풍크리트 타입물을 지켜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소재였다.

그날 학생들은 남은 작업시간에 와서 소리치며 일순을 다그쳐 반나절동안에 한껏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올리었다.

#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공업의 척후병, 선봉대로 내세워 주시여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들의 회에서 나라의 지질탐사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만년도대를 마련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업적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히 뛰어들 것임이다.』

감격도 새로운 혁사의 날을 맞이한 전국의 지질탐사부문 일군들과 탐사원들은 나라의 지질탐사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비범한 사상과 평도, 고백한 덕성과 인민적 풍모를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우리

의 자원으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이 땅에 지상학원을 건설하여 애하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주우복과도 같은 그날의 말씀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지질탐사부문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해방직후 지질탐사부문은 시추기 하나 뻔한 것이 없었고 나라의 자원을 개발할만 한 지질도 한창 톡톡한 것 없었다. 전국의 초행길에서 우리

의 일군들을 만나는 그가

같이 지적 하시였다.

『지질탐사일군들은 사회적

적으로 우대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질탐

사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한

일군들과 공로있는 일군을

평가 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초소에서

정치적 성명을 끌까지 빛내

어나도록 하여야 합

니다.』

조국의 제부를 늘여가는 한없는 긍지를 알고 지질탐

사부원이 된 그였다. 하지만

우리 당이 바라는 그런 참된 인간,

애국으로 성장하는 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해발고가 1000m가 넘는 원시림을 헤치며 하루에

도 몇십길을 끌려야 하였다.

그때 몇번이고 산을 내릴 결심을 품기도 하였던 황태일동무

였다.

그렇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청춘을, 아니 자기들의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질탐사부원

들이이다.

그는 오늘 자기의 한생을

궁지높이 둘이켜보며 새 세

대 지질탐사부원들에게 말

한다.

지질탐사부원의 가장 큰 재

주는 당의 믿음을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깨끗한 향심이

라고.

그럼에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미는 그를 격정하며 견

강도 좀 들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짚은 담당지도원은

리당비서가 근 30년전에 자

기처럼 군당 담당지도원을 한

사실을 화제에 올리며 말했다.

『말에 의하면 그때 리당비서

한국의 불빛에 당시

군人们的 현실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드는 때가

있다.』

며칠 전 은파군례로

협동농장에 위치장을 때였다.

밤이 이슥했는데도 리당비서

는 퇴근할 생각을 잊고 길가에

나가 전지불을 빠져보며 암흑

부절 못하고 있었다. 알고보니

그날은 작업반들에 내려간

군당 담당지도원을 기다리고 있

었다.

이윽고 담당지도원이 바지가 빙어가 푹 젖은 차림새로 나타

났을 때 리당비서는 일간 일이

되었고 담당지도원에게 전지불을 비쳐

한 채의 설계도를 펼치실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셨다. 지질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출신 군인들을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전선에 배치하여 대학에서 다시 공부도 시키고 탐사부문에 보내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의 정도가 있었기에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빌더에서 우리의 동지들은 특출한 수기로 놀라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전국 도처에서 탄광, 광산들을 무수히 개발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평도와 지질탐사일군들에 대한 육친의 사랑속에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지질탐사사업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는 만들지 못하였던 작은 축적의 지질도가 훌륭히 완성되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통해 강력한 혁사력량이 꾸려졌으며 하지마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주우복과 같은 그날의 말씀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지질탐사부문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해방직후 지질탐사부문은 시추기 하나 뻔한 것 없었고 나라의 자원을 개발할만 한 지질도 한창 톡톡한 것 없었다. 전국의 초행길에서 우리

의 일군들을 만나는 그가

같이 지적 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데 대하여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탐사부문의

경계선의 요구에 맞게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군협회를 소집하고 고전적인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

#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물길굴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 결사판철은 우리의 대답

#### 평안남도 려단 돌격대원들

선군조선의 혁명적 기성이 나래치는 희천 발전소 건설장에서 물길굴공사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발을 풀겠으며 지하의 대통로인 양 끝없이 뻗어간 물길굴. 불과 2년 수천 척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 척지하마장에 이르렀던 창조물을 일떠세운 것도 놀라운 일이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수 있게 회한하게, 훌륭하게 건설한 것도 자랑할만한 일이다.

기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평안남도 려단 전투원들의 투쟁이야기는 희천의 영웅서사시 속에서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선언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려단의 지휘관들도 대원들도 어려웠던 착공의 그 나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

건설장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득한 숙소가 아니었다. 한갓 오솔길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깊고 험한 산골짜기, 해발 수백m의 가파로운 산중턱에 꽂혀있는 작업경입구를 나타내는 표찰들…….

파업은 방대하고 애로와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하나의 의지로 고동쳤다.

어제 순천시 대 뿐이 래.

#### 철도성 려단에서

철도성 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건설한 물길굴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공전의 벽면처럼 정갈하게 꾸복을 써운 물길굴을 돌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건설물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에서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깊은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지난해 회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장군께서는 군인 견설사들이 맹방장에 써붙인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를 보시고 회천발전소는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최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하시였다.

위대한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반들고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조적지를 험하였다. 일군들은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서 기술혁신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결사판철로 보답하자!

결사판철, 이것은 그들의 높뛰는 숨결이었다.

그들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조건에서도 속초건설이 아니라 함미와 정대로 산중턱을 험하면서 작업장을 놓기 시작하였고 끝없이 쏟아지는 무더기 비속에서도 작업도로 건설을 끝까지 않았다.

가지 가지의 위험들이 려단의 전투기록장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다.

순천시 대에는 자기의 이름보다도 리수복영웅의 고향대로 더 잘 알려졌다. 그 부를 속에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밭과 용지제보장을 맡은 덕천시 대에 전투원들은 물이 줄어들기를 막아서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떨쳐나섰다.

그들은 밭과 용지제보장을 맡았던 대내를 멘체 서로서로 이깨를 겪고 가슴에는 물속을 헤쳐나갔다.

그들이 부르는 「적기자」

의 힘찬 노래소리가 물소리를 짓누르며 산발마다 메아리쳐졌다.

그들의 전투원들은 그대로 포연숙을 냐고 헤쳐며

싸우는 고지우에 포함과 탄약을 운반하던 1950년대 전화의

영웅전사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차체로 개조한 전차를 이용하여 벼락운반속도를 높임으로써 굴진실적을 단번에 두배로 즐기며 물길굴을 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밭과 용지제보장을 맡았던 대내를 멘체 서로서로 이깨를 겪고 가슴에는 물속을 헤쳐나갔다.

그들이 부르는 「적기자」

의 힘찬 노래소리가 물소리를 짓누르며 산발마다 메아리쳐졌다.

그들의 전투원들은 그대로 포연숙을 냐고 헤쳐며

싸우는 고지우에 포함과 탄약을 운반하던 1950년대 전화의

영웅전사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여단의 전투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물길굴을 놓았던 후날에 가서도 손색 없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하였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위훈은 결코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회천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엮어지고 있다.

# 로동당시대를 노래한 인상깊은 명작에 담겨진 이야기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를 쓴 류명호동무를 만나보고

지난 5. 1절 날 명절 분위기로 흥성이는 모란봉을 찾았던 우리는 한 대학생의 시랑송을 들게 되었다.

최근 청소년 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널리 향송되고 있는 인상깊은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였다. 수십년 전 대학 시절에 춤겨울을 하던 시를 새 세대 대학생에게서 다시 듣게 되는 우리의 감흥은 둔달랐다. 당시의 한 대학군인대학생이 지은 한편의 자작시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사려 깊은 관심속에 이렇게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23년, 짧지 않은 그 세월 속에 절차마다 시의 존재를 접차 있어 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의 어느날 뜻깊은 무대에서 음악은 서정시를 들으시고 평범한 것을 가지고는 로동계 군의 세상인 우리 시대의 정신을 강조길이 표현하였다. 그리고 높이 평가하시며 편지에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신 어버이 장군님!

그날의 감격은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 창작실장 류명호동무의 가슴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그는 말했다.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는 그 누구의 문학적 재능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저로서는 아직 문학적 재능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다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된 행복을 시에 그대로 담느라 그렸습니다.』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한 한 로동자의 아들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우리 제도는 바로 로동계 군의

세상이고 로동계 군의 세상은 그날 고맙다고 인사하는 류명호동무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강좌장을 말했다. 『인사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재간 등이 많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잘 키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아들의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았던 류명호동무 부모의 주름

잡힌 두손은 오래 동안 떨리었

다. 사람 못살 그 월세 지지리

도 버립니다. 막벌이 군집 안에

로동당시대에 와서 첫 대학생

이 나왔던 것이다.

『분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화사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문학작품의 진실성은 작가의 생활체험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는 그때

로 펼치는 아버지전이며 일기이기

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기관사,

어머니 역시 철도로동자였다.

하지만 위대한 아버이 사랑은 평범한 아버지가정으로 언제나 따스로이 비쳐들었다.

세월의 흐름속에 끌이 없는 어머니당의 사랑은 정녕 얼마나 대단한가. 병사시절 제대를 앞둔 어느날 김일성 종합대학 강좌장이 찾아왔다.

『문학을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까?』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글을 썼다면

군사복무의 나날 문학통신원으로서 학창시절에 배운

지식과 병사시절의 체험에

기초하여 2~3편의 시를 발표한 것이 고작이었다.

『제대되면 아버지처럼 기관사가 되려 했던 나에게 이런

류명호동무는 경정 어린

상상밖의 행복이 차례지니!?

그날 고맙다고 인사하는 류명호동무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강좌장을 말했다.

『인사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재간

등이 많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들을 잘 키울데 대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습니다.』

아들의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았던 류명호동무 부모의 주름

잡힌 두손은 오래 동안 떨리었

다. 사람 못살 그 월세 지지리

도 버립니다. 막벌이 군집 안에

로동당시대에 와서 첫 대학생

이 나왔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에

시기만 찾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던 대답, 서정시

창작의 나날에 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로동자의 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설사 생활상에서 절이 체험

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활의 본

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동네 아이들의 아버지 자랑에

쫓기 위해 강가에 흘로 서있던

소년, 누가 속풀가방 밖에

산수공부하면서 소년의 심정...

그려 했던 어린 소년이

아버지 자랑에서 이길 그 날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관광으로

온다. 그들이 관광으로

